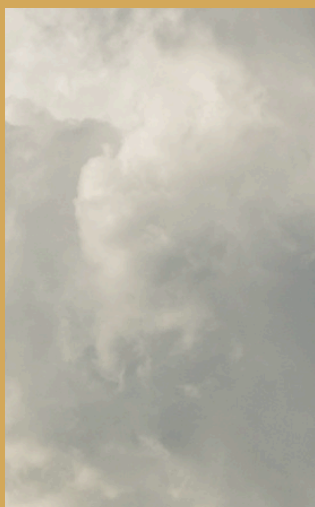




Recordings from Seoul. 서울에서의 기록들.

01/

A Memoir in Fragments | 단편으로 엮은 회귀의 기록

To my dad, mum, sister, brother EunCheol, Pepper,
my ancestors, and my future children and partner.

Special thanks to Hyeon-ju and Eunna
for holding space and sharing in the book club.

To Maria Shriver and Jungmin Park, for the inspiration.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일까를 알기 위해 애썼던 내가 어린 시절의 일기에 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나라는 존재가 저지른 일, 풍기는 냄새, 보이는 모습은 타인을 통해서만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타인의 마음에 비친 감각들의 총합이었고 스스로에 대해 안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은 말 그대로 믿음에 불과했다."

-단 한번의 삶 by 김영하

"The version of me who struggled to understand who I was and what kind of person I might be is captured in the diaries of my childhood. But looking back, I realize that the things I did, the scent I gave off, the way I appeared — could only truly be known through others. What I called 'myself' was merely a collection of impressions reflected in the hearts of countless others, and many of the things I believed I knew about myself were, quite simply, just beliefs — nothing more."

-One Life Only by Kim Young-ha

ABOUT THE AUTHOR



신은제

안녕하세요, 저는 신은제입니다. 임팩트 투자자이자 글쓰기가 취미인, 그리고 제3문화권 여성으로서 — 서울에서 태어나 토론토와 뉴욕에서 자랐고, 이스라엘과 독일의 호스트 패밀리와 UN 외교관들과 함께한 경험을 지나, 현재는 런던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외 거주자(Expat)’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점점 ‘이민자(Immigrant)’로서의 정체성으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해외에서 살아온 시간은 제가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보낸 시간보다도 훨씬 길니다. 그 사이,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이 에세이 모음집은, 그런 저의 삶이 다시 태어난 도시 서울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이자,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혈통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이 작업은 저에게 있어 귀향이자, 동시에 정리되지 않은 내면의 질문들과 마주하는 내적 귀환입니다 —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뿌리가 지금의 나를 어떻게 형성해왔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또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세대 간 기억, 또는 인생의 전환기를 살아가며 자신을 탐색하고 있는 여정 속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자기 자신을 더 온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J Elena Shin

Hi, I'm EJ Elena Shin. I'm an impact investor, writer at heart, and third-culture woman — born in Seoul, raised in Toronto and New York, shaped along the way by Israeli and German host families + UN diplomats, and now based in London — living somewhere between expat and becoming immigrant. For the past 22 years, I've lived abroad — longer than I ever lived in South Korea — while building a career in global finance.

Through this collection of essays, I return to my birth city with new eyes, tracing memory, identity, and belonging across time, place, and bloodline. This work is both a homecoming and a reckoning — a way to understand where I come from and how that shapes who I'm becoming.

I hope that in reading these reflections, others navigating diasporic identities, intergenerational memory, or personal thresholds might feel a little more seen — and a little more whole.

RECORDINGS FROM SEOUL BY EJ ELENA SHIN

WEBSITE: [OBSIDIAN ODYSSEY](#) / INSTAGRAM: [@20HUMAN00](#) / [LINKEDIN](#)

CONTENTS

Preface / 서문 05

Part I | The Memory and the Mirror 11

01: 회귀본능 – 기록 / The Return instinct – A Record.

02: 내가 기록하는 이유 — 말 대신 마음을 전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 /
Reasons I record — Learning how to speak heart, not words

03: 신언서판, 그리고 나의 강박증. / Character, Speech, Writing,
Judgment — and My Obsession.

Part II | Return and Reflection 31

04: 사유하는 삶 / A Contemplative Life.

05: 22년만의 독대 — 서울, 그리고 나 자신과 다시 마주한 밤. / A One-
on-One with Seoul, 22 Years Later — The Night I Faced Seoul,
and Myself, Anew

06: 신고식. 그리고 졸업식. / Initiation. And Graduation.

Part III | The Thread of Blood 53

07: 미적분 – 조상과 후손들 / Calculus — The Relationship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08: 붓과 펜 / Brush and Pen.

09: 캣맘. / Cat Mom.



PREFACE / 서문

제목: 단편들로 회귀하며

어떤 이야기들은,
돌아오기 전까진 도무지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른다.
단지 어떤 장소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 한켠에 숨겨두었던 '나'의 한 조각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 기록은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쓴다는 것'과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용히 이해해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한강을 따라 달리던 밤,
오래된 편지들, 가족 혈통과 가부장제도에 대한 사유들—
이 흩어진 단편들이
하나의 별자리처럼 엮일 줄은 나 자신도 몰랐다.

이 글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에세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는 회고록,
부분적으로는 영혼의 결산,
부분적으로는 문화적 성찰이다.

어릴 적 한국을 떠나,
성인이 되어 다시 돌아온 내가
말과 시스템 사이에서,
가족과 역사의 시대 안에서 살아낸 기록이다.

각 글은 거울 조각처럼
단지 나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이 땅이 품고 있는 더 깊은 이야기들—
그 역사, 슬픔, 회복력, 그리고 조용한 변혁의 흔적들을 비춘다.

다시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변한 건 이 도시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였음을 느꼈다.

PREFACE / 서문

Title: On Returning, in Fragments

There are some stories we do not know how to tell until we return — not just to a place, but to a version of ourselves we had long tucked away.

This collection began as a quiet attempt to understand what it means to remember. To write. To return. I had not expected these fragments—drawn from night runs by the Han River, letters from a distant past, reflections on bloodlines and patriarchy—to form a constellation. But they did.

These are not essays in the traditional sense. They are part memoir, part spiritual reckoning, part cultural observation. They are the voice of someone who left Korea as a girl and returned as a woman; someone who has lived between languages, across systems, inside inherited expectations.

Each piece is a mirror shard: a way of remembering not just my own story, but the deeper story of this land—its history, grief, resilience, and tender reformations.

As I walked the streets of Seoul again, I found not just the city had changed, but that I had too.

PREFACE / 서문

나는 종종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한국에 계속 살았더라면,
아마 가부장적 남자에게 주먹을 날려 감옥에 갔거나,
혹은 스스로 삶을 끝냈을지도 모른다고.

한국을 떠났다는 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그건 생존 본능이었다.
Lifeline.

그리고 나는,
20여 년이 넘도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마침내 느낄 수 있는 순간을 허락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이 글들은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모든 걸 버려낸
어린 시절의 나를 향한 헌사이다.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기까지
모든 것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던 나의 한 버전에,
조금 더 나이트 나 자신에게 바치는 감사이기도 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를 여기에 데려다 놓았다.

10년 전, 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실타래처럼 엉켜서
평생을 들여야 풀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땐 정말 그렇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실타래의 반대편에 서 있다.
사실 나는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진짜 ‘쉼’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

PREFACE / 서문

I used to joke: had I stayed in South Korea,
I may have either ended up in jail
for punching a patriarchal man,
or disappeared by my own hand.
Leaving South Korea wasn't just an opportunity.
It was a survival instinct.
A lifeline.

I am grateful that I was finally given a moment to feel —
for the first time in over two decades.

This collection is an ode to my younger self,
the one who held it all together without failure for so many years.
And to my older self — who kept things intact long enough for this moment to
arrive.
until this current self was ready to take over.
They each carried me, in different ways.

Ten years ago, I told a friend,
“I don't even know where to begin.
It feels like a massive ball of tangled yarn —
a tangle too dense to ever untie.”

I thought it might take a lifetime.
But here I am, on the other side.
The truth is, I haven't been able to rest until this very moment.
Because paradoxically, rest never felt safe.

PREFACE / 서문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쉽’은 안전하지 않은 감각이었다.

쉽 = 고요함 = 감정의 직면.

쉽 = 미뤄둔 감정들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

쉽 = 슬픔, 배신, 혈통의 무게와 대면하는 순간.

그래서 나는

‘활동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쉬지도 않는’

미묘한 긴장 상태로 살았다.

내 몸은 늘 얼어 있었고,

나는 매 순간을 생존하며 버텼다.

이 글쓰기는

그 얼어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출구였다.

다시 ‘느껴도 된다’는 초대장이자,

기억하고, 풀어내고, 다시 써내려가는 행위였다.

이 기록은,

두 문화 혹은 여러 문화 사이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바친다.

세대 간의 치유가 가능할지

스스로 물어본 적 있는 이들에게,

딸로 태어나 아들처럼 살아야 했던 이들에게,

침묵 속에서 시를 써야 했던 아들들에게,

이름 붙일 수 없는 무게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

언젠가 나에게 묻게 될,

내 미래의 아이들에게 남긴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

이것이 나의 대답이다. 가르침이 아니라, 유산으로 남긴다.

이 책이 당신에게,

잠시 숨을 돌리고,

기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PREFACE / 서문

Rest meant stillness.

Stillness meant feeling.

Rest meant reckoning — with grief, betrayal, and lineage.

So I lived in a subtle freeze. Not active. Not resting. Just bracing.

Surviving every moment.

Writing this became my way out of that freeze.

An invitation to feel again.

To remember. To release. To rewrite.

This collection is for anyone who has lived between cultures.

For those who wonder if healing is possible across generations.

For daughters who became sons to survive,

and sons who write poems in silence.

For those who carry grief with no name — only weight.

And most of all, it is a record for the ones to come —

my future children, who may one day ask:

“Where do we come from?”

Here is my answer —

written not as instruction, but as inheritance.

May these pages offer you space to breathe, remember, and begin again.

— 신은제 / EJ Elena Shin

Seoul / London 2025

PART 1



THE MEMORY AND THE MIRROR

01: 회귀본능 - 기록.

나는 기록에 집착하는 편이다.

선비사상의 영향일까.

예전에는 스크랩 북들을 만들었다. 가는 여행지 곳곳 마다.

그러다 한계치에 이르렀고, 결국 여행지들을 사진들로...

이제 최근에는 몇십년 만에, 인스타로 돌변했다.

한때는 - 아버지께 따르면 ‘엄세주의’

나에 따르면 ‘미니멀주의’에 빠져

여행이나 성지순례를 가는 족족

글하나, 사진 한장 남기지 않았다.

60개국 정도를 갔는데, 사진에 담기 시작한 것은 최근부터...

무소유의 정신을 실행해

모두 헛되고 부질 없는 것이란 생각에.

무소유에 집착하는 동양의 정신과,

풀소유에 집착하는 서양의 정신 사이에서

명상과 묵언, 수행의 길 vs. 월가에서 돈벌고 투자하는 길.

나는 항상 갈팡질팡 했던것 같다.

하지만,

깊게 들어가보면,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

모든 직업은 수행의 길이라고.

그래서 어쩌면 나는 금융에서 일하면서도

지난 12년이란 세월을

도를 닦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다.

수행자의 자세로.

절간이나 산사가 아닌 -

오피스 빌딩에 앉아...

이제 어진 불혹에 가까워진 나이가 되니

나다워지는 상태로 돌아가는 중인 듯 하다.

01: THE RETURN INSTINCT – A RECORD.

I tend to obsess over recording things.
Perhaps it's the legacy of the seonbi (scholarly) spirit —
discipline of Korean Confucian scholars.
I used to make scrapbooks —
one for every place I traveled.
Eventually, I reached my limit.
So I replaced the records with photographs.
And now,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that instinct has morphed into Instagram.

There was a time —
when, according to my father, I was being “cynical,”
but in my own words, I had fallen into minimalism.
Even on sacred pilgrimages,
I didn't leave behind a single line of writing or a single photograph.
I've traveled to around 60 countries,
but only recently did I start capturing any of it.

I was practicing the philosophy of non-possession,
believing that all of it was ultimately futile,
that nothing was truly worth holding onto.
Caught between the Eastern obsession with owning nothing
and the Western obsession with owning everything —
between a path of meditation, silence, and spiritual discipline
vs. a path of wealth-building and investing on Wall Street —
I've always felt pulled in both directions.

But when I look deeper,
I remember something my mother once said:
“Every job is a spiritual path.”
So perhaps, even as I worked in finance
for the past twelve years,
I was walking that path too —
with the heart of a seeker,
the posture of a practitioner.
Not in a mountain monastery,
but seated in a high-rise office building.

01: 회귀본능 - 기록.

회귀본능.

글쓰는 사람은

글을 써야

마음이 통쾌해지고,

기록하는 사람은

기록을 해야

마음이 상쾌해진다.

무언가 마무리 지었다는 생각.

생각이 정리되는

그래서 글로 나와

문자화 되어

마무리되는

그 순간.

그 절묘함이.

행복이다.

01: THE RETURN INSTINCT – A RECORD.

And now, as I near the age of *bulhok* (“불혹”)* —
the age of no longer being swayed —
I find myself slowly returning
to a truer version of who I am.

A person who writes
must write
to feel a sense of relief.

A person who records
must record
to feel a sense of release.

That feeling —
that something has come to a close.
Thoughts begin to take shape,
and emerge as words.
Formed into letters.
Completed in form.

That moment —

of quiet precision —

is happiness.

*불혹(*bulhok*) refers to the age of 40 in Confucian tradition, symbolizing a time when one is no longer easily confused or shaken by external influences.

02: 내가 기록하는 이유.

— 말 대신 마음을 전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

어쩌면,

내가 유학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서글퍼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겨온 것 같다.

그 이후로 내가 닿을 수 있었던

가족의 잔상이라 함은 —

한창 근무하시던 아버지의

전화기 너머 목소리,

어머니가 가끔 일 년에 한 번 보내주시던

소포 박스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기다렸던 건,

어머니의 손편지였다.

사춘기 이후

무뚝뚝해졌던 나는

늘 ‘아들’ 같은 존재여야 한다고 믿었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했지만 —

어머니는

소포 안에 붉은 매직펜으로 적은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편지처럼 함께 넣어 보내주시곤 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도착한

그 손편지는

종종 내 삶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렇게,

그리워만 하던 부모의 품을

나는 어쩌면

기록의 힘으로 이겨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후손을 위한 기록 남기기’에

마치 목숨을 걸 듯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닐까...

02: REASONS I RECORD.

— *Learning how to speak heart, not words*

Perhaps,
ever since I began studying abroad,
I've come to accept a life
of quietly carrying longing in my chest,
of feeling a subtle, silent sorrow —
as something natural.

Since then, the traces of family I've been able to reach
have often taken the form of my father's voice
on the other end of a phone call during his busy workdays,
or the care packages my mother would send —
maybe once a year.

But above all,
the thing I longed for most
was my mother's handwritten letters.

After adolescence,
I grew emotionally distant —
believing I had to be like a “son” figure:
stoic, composed,
never easily showing emotion.

Still,
my mother would slip short words of encouragement
written in thick marker
inside those care packages,
as if they were letters.

Arriving when I least expected them,
those handwritten notes
often became the anchor I clung to in life.
And in that way,
perhaps it was through the power of recording
that I endured the absence of my parents' embrace.

Maybe that's why, now,
I devote myself so fully — almost as if my life depends on it —
to leaving behind records
for future generations.

02: 내가 기록하는 이유.

— 말 대신 마음을 전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

막내였던 나는
어릴 적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만,
어느새
공인이었던 아버지는
일로 바빠졌고,
그가 은퇴하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야
비로소 다시
‘아버지란 사람’을 알아가게 되었다.
어머니 역시 공인이었지만,
아버지와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접고,
서포트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렇게,
성장과정 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나는,
부모님들과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그들이 공식 석상에서 남긴
신문 기사, 잡지 인터뷰, TV 출연 자료들을 때때로 찾아보았다.
그 속에 남겨진
한 문장, 한 단어 속에서 —
그들이 진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헤아려보고
그들의 온기를 가슴으로
찾아내 느꼈던 것이다.

대학교 시절,
출가에 대한 꿈을 잠시 접어두고,
뉴욕 한복판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먹으며
혼자 자취방에서 취업 준비를 하던 그 시절 —
삶은 목직했고,
어디에도 기대기 어려운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기록으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02: REASONS I RECORD.

— *Learning how to speak heart, not words*

As the youngest child,
I was showered with love from my mother and father when I was little.
But somewhere along the way,
my father — who was a public figure —
became increasingly consumed by work.
It wasn't until after he retired,
spending more time at home,
that I finally began to rediscover
who he was — not just as a father,
but as a person.

My mother, too, had a public career,
but she chose to set aside her own path
to support my father and us, her children.
Growing up far away from them,
I often searched for ways to feel connected.
Sometimes I would look up old newspaper articles,
magazine interviews, and TV appearances
where they had been featured.

From a single sentence,
a single word tucked inside those public moments,
I tried to grasp who they really were.
I searched for traces of warmth —
and sometimes, I could feel it in my chest.

During university,
I briefly set aside my dreams of monastic life.
In the middle of New York City,
eating rice with cold water in a tiny apartment,
preparing for job interviews on my own —
life felt heavy.

In the stillness, with no one to lean on,
I began speaking to myself
through the act of recording.

02: 내가 기록하는 이유.

— 말 대신 마음을 전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

한참 진로와 인생에 대해 고민이 많았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없이 어머니가 보내주신 소포에
자신이 대학교/대학원 시절
학교 신문에 기고했던 글들을
스캔해 보내주셨다.

그 글들을 읽고선
단맛 쓴맛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아 - 역시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것이구나.

그의 청춘 시절 글들에는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유가
담겨 있었고,
이상주의적 민주화 사회에 대한
갈망도 가득했다.
마치 내 자신을
시대와 성별만 다를 뿐,
거울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곤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도 이겨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기록을 남긴다.
언젠가 나의 후손이
지금의 나처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어질 그날을 위해.
말 대신 마음을 전하는 법을,
나 또한 배워가는 중이다.

02: REASONS I RECORD.

— *Learning how to speak heart, not words*

Back when I was deeply lost —
uncertain about my career and life path —
my father, without a word,
quietly included something in a care package my mother sent.

Inside were scanned copies of articles
he had written for his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newspapers.
Reading those writings,
I found myself laughing, crying —
tasting the sweet and the bitter.
Ah... so this is what they mean
when they say “you can’t hide your blood.”
In his words from youth,
I found a depth of reflection and inquiry about life.
There was also a fervent longing
for a more idealistic, democratic society.

It felt as though I were looking into a mirror —
same spirit,
only the era and gender had changed.
And then I thought:
Even so —
if he found a way through it,
maybe I can too.

So today,
I continue to record.
For the day my own descendants,
just like me now,
might wish to understand the hearts of their parents.

I, too,
am still learning how to speak heart,
instead of words.

03: 신언서판, 그리고 나의 강박증.

어려서부터 —

강박증이 있었다.

어디서 비롯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속마음이나 깊은 생각들을 좀처럼 글로 남기지 않았다.

누가, 언젠가, 나의 글을 본다면

그들이 내게 내릴 판단(Judgement)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한국 조선 왕실에는 사관이 있었다.

왕의 말과 행동을

24시간 따라다니며 꼼꼼하게 기록하던 존재들.

후손들은 그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를 배우고, 인물을 평가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머릿속에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누군가에게 들키고 있다’는

이상한 확신 같은 게 자리잡았다.

내가 쓰는 모든 글은 어딘가 남고,

어느 날, 한가한 누군가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해

나를 판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지금 생각하면,

꽤나 이고티스티컬한 상상이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어려서 종종 사진을 찍을 때

“언젠가 누가 너희 자서전을 쓸지도 모르니까, 사진은 남겨둬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 말은 내 무의식에 꽤 오래 남아 있었다.

방금 아버지에게 물어보니

정작 본인은 그 말조차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신다.

그 시절, 그는 그냥 기분이 좋았고,

아이들이 예뻐서 사진을 찍으며 내뱉은 말들이었단 것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을 굳이곧대로 받아들였고,

어느새 나의 말과 글, 행동, 태도 하나하나를

‘남겨질 것’이라는 전제로 걸러내기 시작했다.

03: CHARACTER, SPEECH, WRITING, JUDGMENT — AND MY OBSESSION.

Since I was little, I carried a kind of obsession — maybe even a compulsion.
I'm not sure where this thought came from,
but I rarely wrote down my deepest inner feelings or thoughts.

I was afraid that if someone — someday — read what I had written,
they would judge me for it.

In the royal court of Joseon Korea,
there were official scribes called sagwan.
They followed the king day and night, meticulously recording every word and
action. Later generations would study those records to learn history and
evaluate the character of the rulers.

At some point, a strange certainty took root in my own mind:
that I, too, was being watched — that someone, somewhere, was secretly
observing me in every moment.
I believed that every word I wrote would be preserved somewhere,
and that one day, a stranger with too much time
might stumble upon it, and judge me.

Looking back now, it was a rather egotistical imagination.
When we were little, my father used to say while taking our pictures:
“You never know — someone might write your biography someday.
So keep the childhood photos.”

At the time, it sounded like a joke.
But that line lingered in my subconscious for years.
When I asked my father about it just now,
he said he doesn't even remember saying it.

Back then, he was simply in a good mood —
snapping photos of his beloved children,
saying things in passing.
But I had taken those words to heart.
And before I realized it, I had begun filtering everything —
my words, my writing, my actions, even my tone —
under the assumption that it might one day be preserved.

03: 신언서판, 그리고 나의 강박증.

그러다 우연히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개념을 다시 보게 되었다.

고대 중국과 조선시대에 인재를 평가할 때 사용되던 네 가지 기준.

- 신(身) – 몸가짐과 품위.
- 언(言) – 말하는 능력과 설득력.
- 서(書) – 글쓰기와 문장력.
- 판(判) – 판단력과 통찰력.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기준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내 안에 내면화되어 있었음을.

사회로부터, 학교로부터, 가족으로부터 —

‘잘 보이고 싶다’는 욕망과

‘틀리면 안 된다’는 긴장이 겹쳐

나는 나 자신을, 마치 시험지 채점하듯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쓰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생각조차, 검열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

이제는 안다.

내가 말한 것, 내가 쓴 것, 내가 선택한 것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점수 매겨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나는 나만의 기준으로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나를 읽는다 해도 —

그 판단은 그들의 몫일 뿐,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것을.

어쩌면 지금 이 글들을 쓰는 행위는

나만의 방식으로 —

그 오랜 ‘신언서판’을 벗어던지는 의식이다.

03: CHARACTER, SPEECH, WRITING, JUDGMENT — AND MY OBSESSION.

Then, by chance, I came across the concept of Shin-eon-seo-pan (身言書判) again — the four criteria used to evaluate talent in ancient China and the Joseon Dynasty of Korea:

- Shin (身) – physical presence and demeanor.
- Eon (言) – speaking ability and persuasiveness.
- Seo (書) – writing skills and literary expression.
- Pan (判) – judgment and insight.

And suddenly, I realized:

these standards had been internalized within me for far too long.

From society, from school, from family —

the desire to "look good"

and the pressure of "never getting it wrong"

had led me to assess myself as if grading an exam sheet.

So I didn't write.

I didn't speak.

I even censored my own thoughts.

But now, something has shifted.

Now I know —

that the things I say, the things I write, the choices I make —

don't have to be perfect.

I am not someone to be scored by others,

but the main character of my own life.

And I can understand myself by my own standards.

And even if, someday, someone reads what I've written —

their judgment is theirs alone.

I am enough, just as I am.

Perhaps this very act of writing these words

is, in my own way,

a ritual of shedding that long-held Shin-eon-seo-pan.



PART 2



RETURN AND
REFLECTION

04: 사유하는 삶.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다른 코드에
접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낮선 도시를 걷고,
익숙하지 않은 풍경을 마주할 때면
내 안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내가 깨어난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감정의 결이 달라진다.

한국을 떠나기 전 —
나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아이였다.
요즘 말로 하면 중2병 같은 상태.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문제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인 줄 알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서 세상의 무게를 다 안고
매일 걱정하고, 마음을 쓰고,
밤마다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과 싸웠던 것 같다.

그러던 내가, 어느샌가
한국이란 곳을 떠나
자본주의 사회의 한복판,
금융의 중심에서
이것저것 세상을 개척하려 하다 보니 —
좌충우돌,
행동이 우선인 삶의 구조 안에서
물드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춰야만 했다.

속도와 경쟁이 일상이 된 세계,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서구와 이슬람 문화의 중심에서
조용히 사색하고 사유하는 삶은
어느 순간부터
나의 나약함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04: A CONTEMPLATIVE LIFE.

One of the reasons I love traveling is —
because it allows me to access
a different code that lies dormant within me.
When I walk through unfamiliar cities,
when I encounter landscapes that aren't part of my daily life,
a completely different version of me awakens from within.
The direction of my thoughts shifts,
and the texture of my emotions changes.

Before I left Korea —
I was a child full of thoughts, full of worries.
In today's terms, maybe I was going through something like "middle school syndrome."
I thought all the pain and problems of the world were mine to carry.
No one told me to,
but I took on the weight of the world alone —
worrying constantly, pouring out my heart,
and battling the thoughts that circled my mind every night.

But somehow, before I knew it,
I had left Korea and found myself in the heart of capitalism,
at the center of finance,
trying to carve out my own path in the world.

Amidst the chaos — in a structure of life where action always comes first —
I had to force myself into a mold just to keep up.
In a world where speed and competition are the norm,
at the center of Western and Islamic cultures governed by the logic of power,
living a quiet life of reflection and contemplation
at some point, began to feel like a kind of weakness in me.

04: 사유하는 삶.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AI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
서양 사회 안에서도
‘사유하는 삶’에 대한
새로운 바라봄이 시작된 것 같다.

빠르고 강한 것이 지배하던 세계가
이제는
느리고 깊은 생각,
의식 있는 존재 방식을
필요로 하기 시작한 것이다.

때로는,
빠름보다 깊이가 필요하고
승부보다 존재가 중요하며
사유는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도구라는 것.

그리고 나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때마다,
잊고 살았던 내 본래의 코드 —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나를 다시 불러낸다.

그리고 그 사유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인간으로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숨결인지도 모른다.

04: A CONTEMPLATIVE LIFE.

But as time passes,
and we transition into the era of AI —
even within Western society,
a new appreciation for “a life of contemplation”
seems to be emerging.

The world once dominated by speed and strength
is now beginning to need
slower, deeper thinking —
a more conscious way of being.

Sometimes,
what we need is depth, not speed;
presence, not competition.
And contemplation, in the end,
may be the last tool
that makes us truly human.

And every time I return to South Korea,
I reconnect with a code I had forgotten —
the part of me that is a contemplative being.

And perhaps that act of contemplation
is the reason I live,
and the final breath
that allows me to remain human.

05: 22년만의 독대

— 서울, 그리고 나 자신과 다시 마주한 밤

오랜만에,
한강을 따라
자정이 넘은 시각에
달리고 있었다.
문득 드는 생각.
‘아 —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서울과의 독대.

어려서 나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낯설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다.
이해할 수 없는 규칙과 코드로 가득한
어른들의 세계.
남성우월주의의 어두운 기운,
칙칙하게 느껴지던 사회.

20대 초반,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 두려웠다.
실제로 대학생 시절 금융가 인턴 면접에서 들었던 질문은,
"음주가무 잘 하나?"였다.

나는 마치 고치 속, 아직 날지 못한 나비 애벌레 같았다.
저 어둡고 거친 세상에서
과연 날개를 펴고 날 수 있을까.
결벽증 있는 내가,
'여성'으로서
영혼을 팔지 않고 살아갈 길이 있을까?
의문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런 속세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가부장제 아래에서
권력의 작용들을 보고 자라며,
모든 것에 염증을 느꼈다.
‘더 고결한 삶이 있다면, 출가가 낫지 않을까?’
수없이 고민했다.

05: A ONE-ON-ONE WITH SEOUL, 22 YEARS LATER — *THE NIGHT I FACED SEOUL, AND MYSELF, ANEW*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while,
I was running along the Han River
past midnight.

A sudden thought arose:

“Ah — Korea has really changed.”

A solitary encounter with Seoul.

When I was little,
South Korea felt foreign to me —
a frightening, intimidating place.
A world of adults filled with rules and codes
I couldn't understand.

The dark energy of male supremacy,
a society that felt dull and oppressive.

In my early twenties, I was afraid to step out into the world.
I still remember a question I was asked
during a finance internship interview as a university student:
“Are you good at drinking and partying?”

I felt like a caterpillar still in its cocoon,
not yet ready to fly.
In this dark, harsh world —
could I ever spread my wings and fly?
As someone with a near-obsessive sensitivity to purity,
and as a woman —
is there a path where I could live
without selling my soul?

I wasn't sure.

More than anything, I didn't want to become part of that world.
From a young age, I had watched the workings of power under the patriarchy.
And I grew sick of it all.

“If there's a nobler life, wouldn't it be better to renounce the world?”
I asked myself that question countless times.

05: 22년만의 독대

— 서울, 그리고 나 자신과 다시 마주한 밤

그러다 올해,
고국을 다시 찾은 여정 속에서
22년 만에 처음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었다.

세월은 흘렀고,
어느새 웬만한 사회인들은 이제 나보다 어리다.
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그 사이 한국은,
내가 떠나 있던 동안
급속도로 변화해 있었다.
새롭게 올라오는 젊은 세대는
예전과 달리,
깨끗하고, 가볍고, 유쾌한 에너지를 뿜고 있었다.

5,000년 역사의 등줄기를 타고
근대사의 전쟁과 독재, 식민지 잔재에 놀려
‘한’과 부패로 무겁게 느껴지던 사회가
이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호랑이와 용의 기운이
태백산맥을 타고
백두산에서 제주까지 솟구쳐 오른 듯

여성의 삶도,
많이 달라진듯 했다.
이제는,
조용히 뒤에서 남편을 보조하고
허를 깨물며 꿈을 포기하는,
유교적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야 했던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주도로,
행복하게,
남편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성의 삶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 있었다.
"이런 별천지가 도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05: A ONE-ON-ONE WITH SEOUL, 22 YEARS LATER — *THE NIGHT I FACED SEOUL, AND MYSELF, ANEW*

Then this year,
on the journey of returning to my homeland,
I experienced emotions I hadn't felt in 22 years.
Time had passed,
and somehow, most working professionals now seemed younger than me —
at the hospital, in schools, even in public institutions.

In the meantime, Korea had undergone
a rapid transformation while I was away.
The rising younger generation, unlike in the past,
radiated a clean, light, and joyful energy.

The society that once felt heavy —
weighed down by 5,000 years of history,
by wars, dictatorships, and colonial remnants in modern times,
by han (deep sorrow) and corruption —
no longer felt that way.

It was as if the energy of tigers and dragons
had surged along the Taebaek Mountain Range,
rising from Baekdu Mountain all the way down to Jeju Island.
Even the lives of women seemed to have changed significantly.
Now, instead of quietly supporting their husbands from the shadows,
giving up on dreams with clenched tongues,
sacrificing everything within the confines of Confucian ideals —
women were living differently.

Women were now
leading their own lives,
happily,
walking with their partners —
not behind them.
And that way of life
was no longer a dream,
but a reality.
I found myself thinking,
"What a whole new world has arrived."

05: 22년만의 독대

— 서울, 그리고 나 자신과 다시 마주한 밤

어느 민족에게나
고유한 '민족정신'이 있다.
이번 귀국은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땅의 깊은 '열'을
다시금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깔끔함, 정직함.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 화랑도의 기개.
저항정신이 투철하고,
'뱃속의 힘'이 강한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꿈꾸며
정의를 위해 기꺼이 일어서는 사람들.
그 뿌리에는
물질보다 정신을 우선하는
깊은 정신문화가 흐르고 있었다.

광물 자원 하나 없는 나라지만,
한국 사람들에게겐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이 있다.
잠시 길을 잃을 수는 있어도,
결국 뱃속까지 강직하고, 올곧고, 선한 사람들.

그게 바로,
한국인의 민족정신이다.
이번 방문은,
그 숭고한 정신을 다시 느끼며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진
그런 시간이었다.

어려서
혼란 많았던 나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그런 나를
용서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05: A ONE-ON-ONE WITH SEOUL, 22 YEARS LATER — *THE NIGHT I FACED SEOUL, AND MYSELF, ANEW*

Every people has
its own unique national spirit.
And this return to Korea, more than anything,
was a time to once again feel —
with my whole being —
the deep eol (soul) of this land.

A sense of clarity, honesty.
The spirit of Hongik Ingan — "to widely benefit the world" —
and the noble valor of the Hwarang*.
A people with a fierce spirit of resistance,
and powerful strength that comes from the gut.
People who dream of spreading goodness,
and who rise willingly in the name of justice.

At the root of it all flows
a profound cultural tradition that prioritizes soulfulness over material things.
Though this country holds no mineral resources,
Koreans possess a rare and special feeling — jeong (deep, enduring affection).
We may lose our way for a time,
but in the end,
we are upright to the bone —
principled, sincere, and good at heart.

That,
is the true ethos of the Korean people.
This visit,
while reconnecting me with that sacred spirit,
left my heart feeling lighter.
It allowed me to gently embrace
the confused, troubled child I once was —
and gave me the chance
to finally forgive that version of myself.

*Hwarang: an elite group of noble youth in ancient Korea who embodied the ideal fusion of warrior spirit, moral virtue, and artistic refinement, serving as both protectors and cultural leaders of the Silla kingdom.

05: 22년만의 독대

— 서울, 그리고 나 자신과 다시 마주한 밤

화해의 길.

가슴 한 칸이

이제는 예전보단

조금은 가벼운 느낌이 드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일까?

05: A ONE-ON-ONE WITH SEOUL, 22 YEARS LATER — *THE NIGHT I FACED SEOUL, AND MYSELF, ANEW*

The path of reconciliation.

Perhaps this is why

my heart now feels

a little lighter than before—

could it be because of this?

06: 신고식. 그리고 졸업식.

나는 삶의 큰 문턱에 서서
세 번 크게 울었던 기억이 있다.

한 번은, 유치원 졸업식 날.
이제부터는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시험과 성적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사회생활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유치원 때부터도 세상의 이치에 대해
고민하던 아이였지만,
적어도 그 시절엔 어른들이
나에게 '사회인'으로서의 기대를 걸지는 않았다.
'어린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누릴 수 있었던
그 느슨한 자유가 이제는 끝났다는 걸 나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날, 정말 세상 서럽게 울었다.

두 번째는 대학 졸업 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뉴욕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며 - 나에게 악수를 청한 날.
이제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벗고,
'이제 너는 어른이다'라는 의미를 담은 제스처였다.
그와 함께, 월가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
무엇보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라는 생각에 하늘이 하얘졌다.
그 사람들이 북적이던 JFK 공항에서,
창피함은 둘째 치고
정말 펄펄 울었던 것 같다.
다행히도 우리 부모님은 체통을 지켰다.
나를 따라 울지도, 무너지지도 않으시고
태연하게 "안녕"이라고 하시며 공항 안으로 들어가셨다.

세 번째는 얼마 전.
우리 집 강아지가 많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미션 수행'이었기에,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나,

06: INITIATION. AND GRADUATION.

I remember standing at the threshold of life and sobbing — three times.
The first was at my kindergarten graduation.
It marked the beginning of “school” life,
a system where one’s worth would now be measured
by tests, grades, and rankings —
the first step into society.

Even as a child, I had already pondered
the nature of the world, but at least back then,
no adult had yet placed the weight of societal expectations on me.
Behind the mask of “childhood,” I was allowed a loose kind of freedom.
And I knew, with crystal clarity, that that freedom had ended.
Maybe that’s why — that day, I wept with a sorrow as vast as the world itself.

The second time was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when my mother and father, flying back to South Korea from New York,
offered me a handshake at the airport.
It was more than a gesture —
it meant: “You’re no longer a student.
Now, you’re an adult.”
And with that came the pressure to survive on Wall Street as a Korean in a foreign
system...But more than anything,
it was the fear: Can I really do this?
The thought hit me — I’m truly alone now.
At JFK Airport, surrounded by crowds,
I cried — uncontrollably,
forgetting about appearances.
Thankfully, my parents held their composure.
They didn’t cry, didn’t falter —
they simply said “Goodbye,”
and walked calmly into the terminal.

The third time was not long ago — when I was told that our family dog is not well.
What mission had I believed was so important that I stayed fixed to a
predetermined path, unable to veer off course,
unable to come to the family sooner?

06: 신고식. 그리고 졸업식.

이방인처럼 고향을 떠나
해외에서 살아온 내가 —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이제는 아프고,
곧 떠날지도 모른단다.
이 허무함이란...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된 날이다.
나같이 낯가림 많고 감정표현 서툰이가
참기가 불가능하게
공공 장소에서
가만히 있어도 흘러내리는 눈물들...
이미 생로병사의 허무함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다른 무게였다.

—
그래서 알게 되었다.
눈물이 흐른다는 건,
무언가 끝났고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신호라는 것을.

삶은 늘 그런 식으로
문턱을 만들고,
그 앞에서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턱마다
조금씩,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

06: INITIATION. AND GRADUATION.

Having lived abroad for so long,
a stranger to my own homeland —
now, the being I love most is sick,
and they say he might be leaving soon.
This sense of emptiness...
It was the day I finally understood
what it means when they say, "tears cloud your vision."

For someone like me —
reserved, slow to open up, awkward with emotions —
the tears came anyway.
Unstoppable.
Even in public, even in stillness,
they simply streamed down.
I thought I already understood
the impermanence of life and death,
but this —
this was a different kind of weight.

—
And so I came to understand:
When tears fall,
it means something has ended —
and something else
is about to begin.

Life always works that way.
It builds thresholds,
and at each one,
it asks us to pause for a moment.
And with each crossing,
we become
a little more
of who we truly are.



PART 3



THE THREAD OF BLOOD

07: 미적분 — 조상과 후손들의 관계.

나는 그들을
이해하려 했던 것 같다.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가 모든 걸 아는 신적인 존재에서
그저 한 인간,
한 부모의 어린 아들딸로
보이게 되는 때가 온다.

나는 네 살 때부터
입버릇처럼 어머니께 말했다.
“나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이 지구에 왔어.”

—

나의 아버지는
'가부장 제도'라 불리던
공직 사회의 권위적 위계 문화 속
한 축의 중심에 있었다.
어쩌면 그는
장난기 많은, 소년 중의 소년이었던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군 같았던 할아버지의
무게와 기대 속에서
그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굳어져버린 건 아닐까.

—

그리고 나는 점점 —
내 조상들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항상 전교 1등을 도맡았던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낯선 서양 문화와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던져졌을 때,

07: CALCULUS — THE RELATIONSHIP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I think I was trying to understand them.

There comes a moment in life

when your parents stop appearing as divine beings who know everything,
and instead, you begin to see them —

just as they are —

as human,

as someone's tender son or daughter.

Since I was four years old,

I used to tell my mother, almost like a mantra:

"I came to this Earth to protect you."

—

My father stood at the heart of the patriarchal order —
in the hierarchical and authoritarian world of public office.

Perhaps, deep down,

he was just a mischievous boy,

a boy among boys.

But growing up under the weight and expectations

of a grandfather who was like a general,

he may have simply hardened

to fit the mold he was given.

—

And over time —

I began to dig deeper

into my ancestors.

Even though I had always ranked first in school as a child,

when I was suddenly thrown into a foreign Western world,

among unfamiliar people and customs,

with no preparation —

07: 미적분 — 조상과 후손들의 관계.

(나의 캐나다 유학은 피신하듯,
단 4개월 만에 준비 없이 진행되었다.
내가 간절히 원하던 유학이었지만,
연고 하나 없는 땅에서
폭풍 속 바다에 홀로 내던져진 그 막막함이란...
2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나는 그때의 감각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막막함은
결국 자기 객관화와 자기 분석으로 이어졌다.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도대체 어떤 핏줄을 타고났기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호와 감각을 지녔으며,
조상들이 남긴
미충족된 바람과 슬픔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내 안에서 공명하는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내 DNA에 새겨져
지금의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어릴 적, 언니는 내게 말했다.
“조상과 후손의 관계는 미적분이야.”
풀지 못한 인자들이
미해결 공식처럼
핏줄과 유전자를 타고
후세로 전해진다는 뜻이었다.
그 말은
오래도록 내 안에 남았다.

조상과 살아 있는 자들은
함께 살아간다.
그들의 ‘알’과 ‘한’은
살아 있는 이의 피를 통해
지금도 끊임없이
이 생을 흐른다.

07: CALCULUS — THE RELATIONSHIP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My move to study in Canada felt like an escape — hurried and unprepared, completed in just four months. It was something I had long yearned for, yet being thrown into a land where I had no roots felt like being cast alone into a stormy sea...Only now, 22 years later, am I beginning to truly understand the feeling I had then.)

That sense of vast uncertainty
eventually led to self-objectivity and inner analysis.
In order to understand this person called “me.”
What kind of lineage had I inherited
that made me think this way,
hold these preferences, these sensitivities?
What unfulfilled desires and sorrows
did my ancestors leave behind
that now resonate so deeply within me?

How is all of this
inscribed into my DNA,
driving the present version of me?
When I was young, my older sister once said:
“The relationship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is like calculus.”
Unresolved traits, like unsolved equations,
are passed down through blood and genes
to future generations.
That idea stayed with me for a long time.
Ancestors and the living
coexist.
Their eol (spirit) and han (unresolved grief)
continue to flow —
ceaselessly —
through the blood of those alive today.

07: 미적분 — 조상과 후손들의 관계.

그래서 나는 오늘도,
풀리지 않은 미적분 문제처럼
내 안의 조상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언젠가는,
이 생을 통해
그 공식을
사랑으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라며.

07: CALCULUS — THE RELATIONSHIP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And so, even today,
I continue to live with my ancestors within me,
like unsolved calculus problems
carried deep inside.
Someday,
through this life —
I hope to rewrite those equations
with love.

08: 붓과 펜.

나는 항상 붓과 종이,
펜과 노트에 집착하는 편이다.
펜의 종류, 그립감, 잉크의 굵기, 나오는 속도,
붓글씨처럼 흘러가는 감각까지 —
내 손에, 내 몸의 흐름에, 내 사유에
딱 맞는 도구가 아니면
도무지 써지지 않는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몸이 먼저 알아챈다.

20대 시절의 로망은
‘결제용 펜’을 따로 두는 것이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AI와 디지털 서명이 일상이 되며
그 취향은 현실과 멀어졌다.
9살에는 내 싸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1년에 걸쳐 완성했고,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지금도
그 싸인을 그대로 쓴다.

나는 믿는다.
필체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긴다고.
옛날이라면,
먹을 갈아 붓을 찍어 쓴 글씨 한 자 한 자에 —
글자의 농도, 붓의 결,
획의 세기, 각도,
멈칫거림, 밀어붙이는 흐름들까지 —
그 사람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성격이 까다로운지,
예민한지,
급하고 성마른지,
섬세한지,
멍하고 무딘지.

08: BRUSH AND PEN.

I've always had an obsession with brush and paper,
pen and notebook.

The type of pen, how it feels in my grip, the thickness of the ink,
the flow speed —
even the sensation of it gliding like calligraphy —
If it isn't a tool that fits precisely
with the rhythm of my hand, my body, and my thoughts,
I simply can't write.

It's hard to explain,
but my body knows it before my mind does.
In my twenties, I had a romantic dream:
to have a separate pen solely for signing documents.

But unfortunately,
with AI and digital signatures becoming the norm,
that preference has drifted far from reality.
When I was nine, I began creating my own signature.
It took me a year to perfect it,
and even now, approaching forty,
I still use that very same signature.

I believe this:
A person's entire essence is contained in their handwriting.
In the past, when people ground ink and wrote with a brush,
every character held a piece of the writer —
The thickness of the strokes,
the brush's grain,
the pressure, the angle,
the hesitations, the forceful sweeps —
all of it revealed their nature.

Whether they were meticulous or sensitive,
impatient or impulsive,
gentle or dull —
it was all there.

08: 붓과 펜.

몸 전체의 에너지가
손목을 타고
붓 끝으로 전해져,
종이 위에 퍼붓듯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알고 싶을 땐
그의 글씨를 본다.
말보다, 표정보다,
더 깊이 있는 진실이
그곳에 담겨 있으니까.

08: BRUSH AND PEN.

The energy of the entire body
flows through the wrist,
transmitted to the tip of the brush,
and pours onto the paper
as if spilling forth in a downpour.

That's why,
when I truly want to understand someone,
I look at their handwriting.
More than their words,
more than their expressions,
there is a deeper truth
contained there.

09: 캣맘.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가 선택하는 단어를 바라본다.
그의 잠재의식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
나는 느낀다.
가족의 대화 중심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

언제부터였을까.
내 언니는 복지법을 공부한 후
동물복지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유기견과 식용 강아지 현장에서
강아지들을 구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러 동물단체의
꼬불꼬불한
정치적 성향과 연락망 사이에
우리 집 전체가 동요되기 시작했다.
벌써 언 5년이 된 것 같다.

우리 부모님도
동네나 길가에 고양이들에게
밥과 물들을 고정적으로 먹이고.
캣맘들과의 교류가 일상이 되었다.
때로는 동네 고양이들을 죽이고 없애고 싶은 열성분자들로부터
민원이 구청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체면을 벗어 던지시고 대신 항변해주신다. (슬프게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남자의 목소리가 더 잘 통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집착을 싫어하신다.
한 번 볼 땐 잘해주시지만 -
질질 끌려 다녀 인연의 끈이 묶여버리는 것은
싫다 하신다.

09: CAT MOM.

When I have a conversation with someone,
I observe the words they choose.
Because their subconscious is reflected in them.
Every time I visit Korea –
I feel it.
How the center of family conversations
has changed over time...
When did it all begin?

After my older sister studied welfare law,
she began to care about animal welfare
and started rescuing dogs
from abandonment and dog meat sites.

And as she became involved with various animal organizations,
with their winding
political leanings and networks,
our entire household began to be stirred.
It's already been five years, I think.

My parents, too,
regularly feed and give water
to the cats in the neighborhood and on the roadside.
Interacting with “cat moms” has become part of their daily life.
At times, when complaints are filed to the district office
by extremists who want to kill or get rid of the neighborhood cats,
my father throws off his sense of pride and
stands up to argue on their behalf.
(Sadly, in Korea, a man's voice is still more effective.)

But my mother dislikes obsession.
She's kind when she meets them once –
but she doesn't want to be dragged along,
tied by lingering strings of connection.

09: 캣맘.

어쩌면 -

그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한 줄 알기에

그러시는 것 같다.

길가는 고양이나 새들.

자동차에 고양이 전용 캔들과

새들을 위한 쌀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며

뿌리고, 나눠주시지만 -

그 이상 그 이하는

하고 싶지 않다 하신다.

기대치가 생기기예.

기다림이 생기기예.

이 모든 것이

인연의 끈이 생성되는 시작이기예.

어쩌면 나도

이런 것을 배운 게 아닐까.

매사에 순간에 최선은 다하지만 -

아직도 서툰 건 사실이다.

마음은 진심이지만,

전생애 수행자의 길을 걸어온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속세의 사람들처럼

연의 끈을 만들어 매듭짓는 것이

그리도 신성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처럼 보인다.

도우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멀찌감치서 바라보게 되는

속세 사람들의 이야기.

하지만 -

이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말이 되는 순간들이 오겠지.

09: CAT MOM.

Perhaps –
it's because she knows
just how heavy that responsibility truly is.
Stray cats, birds on the roadside...
She always carries canned food for cats
and rice for the birds in her car,
scattering and sharing them as she goes –
But no more than that,
no less than that.
She doesn't want to go further.
Because expectations form.
Because waiting begins.
Because all of it
is the beginning of a thread of connection.

Perhaps I, too,
have learned something from this.
I try my best in each passing moment –
but the truth is, I'm still clumsy.
My heart is sincere,
but maybe because I've walked the path of a monk
in past lives,
forming and tying the cords of human connection,
like people in the secular world do,
feels both sacred –
and somehow difficult.

Stories of worldly people,
which I watch from a distance,
not knowing
where to begin,
or how to approach.

And yet –
perhaps all of this
will one day
find words of its own.

09: 캣맘.

그래서 또
나는 생각하고, 기대한다 -
언젠가 나의 동반자와
우리 미래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조선시대 여자 말버릇처럼 -
'후손들을 위한 보관용'이라며
기록들을 남기고,
내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려 노력하게 된다.
금덩어리들일 테니...

09: CAT MOM.

And so again,
I think, and I hope –
for the life I'll one day share
with my partner,
and our future children.
And, like a woman from the Joseon Dynasty,
with that quaint old habit of speech –
“For the safekeeping of future descendants,”
I leave behind these records,
gather my thoughts,
and try to prepare a nest for them.
They'll be golden treasures, after all...





